

충북 귀촌인 애로사항 연구

김미옥*

*충북연구원

e-mail:miok96@cri.re.kr

A study on difficulties for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in Chungbuk

Mi-Ok Ki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은 충북 귀촌정책수립을 위해 충북 귀촌인 312명을 설문조사함으로써 귀촌 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였다. 그 결과 귀촌 이후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비중은 약 34%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이유는 상호이해 부족 및 오해가 약 25%로 가장 높았으며 이해관계 상충이 약 19%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해대한 해결책으로 약 35%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 연구배경

전국의 농업인구는 1970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충북도 마찬가지이며 농업인구 감소는 농업노동력의 양적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충북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70세 이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60대 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고령화가 전국에 비해 진전되지 않았지만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 속에 젊은 연령층의 귀촌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귀촌은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다. 하지만 귀촌후의 생활에 적응을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비중도 높아 귀촌후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충북에 귀촌한 귀촌인 312명을 대상으로 2021.06.01.~2021.06.20.동안 설문조사하여 귀촌 후 애로사항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본 설문응답자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22명(7.1%), 40~

59세가 113명(36.2%), 60세 이상이 174명(55.8%), 미응답이 3명(1.0%)로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가족과 동반하여 귀촌하였는지 여부로는 약 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6%만이 본인만 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동반일 경우 자녀와 함께보다는 부부만 귀촌한 경우가 약 54%로 2배 이상 더 많았다. 이는 귀촌인들의 연령이 장년층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귀촌인 중 농업에 종사하냐는 질문에 약 23%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약 14%는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귀촌 후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약 36%라는 높은 비중으로 생활여건이라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힘든 노동과 마을사람과의 관계였다. 귀촌 이후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비중은 약 34%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해 젊은 계층일수록 갈등이 심할 것으로 본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귀촌인과 현지인의 갈등은 다양한 요인이 비슷한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중 상호이해 부족 및 오해가 약 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해관계 상충이 약 19%로 높았다.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약 35%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이 약 20%로 높았다.

4. 시사점

농업에만 종사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높아 기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정책에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귀촌인을 포용할 수 있는 귀촌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읍·면 단위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인 대표, 마을이장, 마을운영위원장, 농업인단체, 귀농·귀촌인 관련 단체,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갈등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중재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 예방 및 관리 교육도 강화해야 하는데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홍보와 교육 등을 지원한다면 갈등으로 인한 귀촌 포기사례는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